

Differences in Happiness according to Value Types and Factors Affecting the Determination of Value Types

Youngju Hur*

Namseoul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values based on the level of self-enhancement and self-transcendence values, then to reveal the differences in happiness according to each type, and to explore the personal factors and family background that influence the determination of the value type with high happiness.

CONTENTS In this study, variance analysis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of 2021 year data of KGSS. Through this, first, was found that the value types of Korean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and the happiness of individuals in the 'value-mixed type' was higher than in the 'value undetermined type'. Second, gender, age, religious, health, and marital status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bability that an individual belongs to a the value-mixed type with a high happiness, but educational level, family's income level,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have a positive effect.

RESULTS A follow-up research will be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self-enhancing and self-transcendental values interact to affect personal happiness. And in order to improve the sense of happiness, support should be given to maintaining close relationships with family members.

KEY WORDS Schwartz's value theory, self-enhancement value, self-transcendence value, value type, happiness

* Corresponding to Youngju Hur (Professo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Namseoul University)

E-mail : youngju@ns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가치유형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와 가치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허영주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의 수준을 토대로 가치를 유형화한 후, 각 유형에 따라 행복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행복감이 높은 가치유형을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가정적 배경을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본 연구는 10대에서 90대까지의 한국인의 가치를 조사한 KGSS 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변량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는 한국인의 가치유형을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가치혼합형에 속한 개인들의 행복감이 가치미정형에 속한 개인들의 행복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는 성별, 연령대,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평가, 그리고 혼인상태는 개인이 행복감이 높은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학력, 가계소득수준, 가족관계만족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인지능력, 추론능력 및 메타인지, 가족의 소득수준 등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을 높여서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도 제안하였다.

주제어 Schwartz 가치이론, 자기고양가치, 자기초월가치, 가치유형, 행복감

I. 서 론

가치(value)는 개인 또는 집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람직한 신념체계(Kluckhohn, 1951: 393)로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유발하고 안내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Schwartz, 2012: 11). 즉,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중요성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며, 중요한 가치에 따라 개인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므로 그에 따른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Han & Park, 2022: 353). 따라서 가치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유용성과 중요성, 바람직함 그 자체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개인의 삶을 이끄는 원칙이다(Ju & Choe, 2012: 680).

사실, 아주 어린 나이에는 가치와 가치구조가 존재하지 않지만(Grusec & Kuczynski, 1997: 59), 초등학생 이후에는 가치유형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연령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Suh & Chong, 2012: 26).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는 성취중심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반면, 상대적으로 박애와 권력중심 가치는 덜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Park et al., 2018: 7). 반면, 노년층으로 이동해 가면서 초월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Yoon, 2012: 24). 이것은 개인의 다양한 특성의 차이로 인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인간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는 개인이 내면화하고 있는 가치가 영향을 미침을 알려준다.

가치가 다양한 태도 및 행동의 설명과 예측에 유용하다는 특징이 부각되면서, 가치는 인간 연구의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Kim & Choi, 2009: 10; Suh & Chong, 2012: 21). 그 중 가치연구의 기본 토대를 잡은 연구가 가치의 구조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한 연구들이다(Choi & Lee, 2014: 554). 많은 연구들이 개인이나 문화 간에 존재하는 가치차원의 유사성과 차이점들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Rokeach, 1973: 99-113), 모든 문화권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가치 차원을 밝히려고 노력해 왔다(Rokeach, 1973: 99-113; Schwartz, 1992: 25-29).

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가치이론 중의 하나가 Schwartz의 가치이론이다. Schwartz(1992: 25-29)는 개인의 가치를 10개의 가치형과 이 가치형들보다 상위의 4개의 가치차원으로 구조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가치구조를 다양한 문화권의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검증함으로써 보편적 가치구조를 확인한 학자이다(Kim & Choi, 2009: 2).

Schwartz가 구조화 한 4개의 가치구조 중에서 전통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온 자기고양가치와 함께,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가치가 자기초월가치이다. 자기고양가치(self-enhancement value)는 성취중시형 가치와 권력주의형 가치를 포함하는 가치차원으로써, 전통적으로 사회적 성공의 동기요인으로 관심을 받아왔다(Elliot & McGregor, 2001: 501-519; Park et al., 2018: 4). 반면,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자기초월가치(self-transcendence value)는 자기고양가치와 반대 편

에 위치한 가치로써, 박애형 가치와 보편주의형 가치를 포함하는 가치차원이다. 사실, 지능정보 사회, 4차 산업혁명 등의 키워드로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학자들은 미래사회가 인간의 단절적 삶을 부추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Choi, 2020: 218; Schwab, Kim & Lee trans., 2020: 31-32; Son, 2011: 94). 그러면서 미래사회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으로서 자기초월을 강조하고 있다(Gardner, 1993: 134-137; Noble, 2001: 31-38). 향후 개인이 지닌 자기초월가치가 개인의 삶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Ju & Choe, 2012: 681).

한국인이 지닌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에 관심을 둔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첫째는 한국인의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 가치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이다(Choi & Lee, 2014: 554; Kim, Chung, & Shin, 2016: 435-457; Suh & Chong, 2012: 21-44; Yoon, 2012: 7-32). 둘째는 개인이 지닌 가치와 특정 태도 및 행동과의 관계를 예측하는 연구들이다(Han & Park, 2022: 351-379; Kim, 2017: 205-242; Menesini, Nocentini, & Camodeca, 2013: 1-14; Park et al., 2018: 1-29; Sortheix, Olakivi, & Helkama, 2013: 331-346).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자기초월가치를 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룬 연구들도 자기초월 연구의 대상을 아동, 청소년 및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연구하거나(Han & Park, 2022: 351-379; Suh & Chong, 2016a: 135-152), 노인으로 한정하여 연구함으로써(Kim, Chung, & Shin, 2016: 435-457; Yoon, 2012: 7-32), 한국인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및 청년, 중장년, 노인까지 광범위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가치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Schwartz의 보편적 가치이론이 한국인에게도 타당하게 적용 가능한지를 탐색하면서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를 독립적인 가치차원으로 가정함으로써, 상호작용에 대해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Menesini, Nocentini, & Camodeca, 2013: 1-14; Sortheix, Olakivi, & Helkama, 2013: 331-346). Schwartz(2006: 170)는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치차원으로서 양립 불가능하며, 공존할 경우 심리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았다(Bubeck & Bilsky, 2004: 31-41; Suh & Chong, 2012: 23). 왜냐하면, 자기고양가치는 자신의 이익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반면, 자기초월가치는 자신보다 타인과 전체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중요시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Kim(2017: 213)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개인들을 ‘가치 혼합적 집단’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 수준이 높고 낮은 경우를 다양하게 유형화 한 후, 유형에 따른 가치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은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인간의 일부분에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가치와 학교폭력, 중독 및 심리적 증상과 관련시키는 연구(Menesini,

Nocentini, & Camodeca, 2013: 1-14), 아동, 청소년 및 대학생의 자기초월가치와 친환경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Suh & Chong, 2016a: 135-152), 자기초월가치가 학업성취에 매개적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연구(Han & Park, 2022: 351-379), 문화적 조건 속에서 개인 수준의 가치가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한 연구(Kim, 2017: 205-242), 자기초월가치가 적응적인 학습동기를 예측하는 변인인지를 탐색한 연구(Park et al., 2018: 1-29) 등은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다. 또한 가치와 개인의 삶의 질이나 행복과의 관계에 관심을 둔 연구(Lee, Lee, & Kim, 2014: 117-132; Sorthaix, Olakivi, & Helkama, 2013: 331-346)는 소수이다. 따라서 개인이 지닌 가치가 인간 삶의 전반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의 연구들은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Yoon(2012: 7-32)은 노년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혼인상태, 교육수준, 건강만족도, 일상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를 보고하고 있고, Kim, Chung, & Shin(2016: 435-457)은 노년의 종교, 교육수준, 신체적 건강, 정서적 단절에 따라 초월수준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지만,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종교 유무, 건강상태만족도 등의 개인적 요인과 혼인상태,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 관계 만족도 등의 가정적 배경 등을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및 청년, 중장년, 노인층을 포함한 연령대별로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의 수준에 따라 가치유형을 결정하고, 각 가치유형이 개인의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행복감이 높은 가치유형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0대에서 90대까지의 한국인의 가치를 조사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KGSS 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의 수준을 토대로 가치를 유형화 한 후, 각 유형에 따라 행복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며, 행복감이 높은 가치유형을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가정적 배경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개인들이 소유한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의 수준은 어떻게 유형화되며, 각 유형별 행복감은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는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치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가정적 배경을 탐색하는 것이다.

II. 가치의 중요성 및 가치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가치의 유형 및 가치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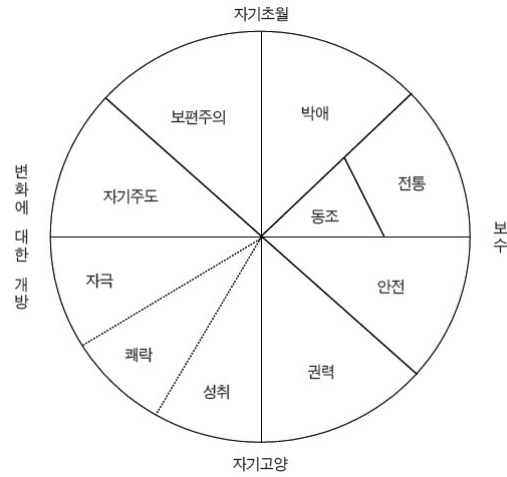
1) 가치의 개념 및 가치유형

많은 학자들이 가치(values)를 개념화하였지만, 이들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가치를 개인 또는 집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람직한 신념체계로 개념화한다. Suh & Chong(2016a: 137)은 가치는 여러 영역에 걸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람직한 목표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Kluckhohn(1951: 393)은 개인이 행위의 방법이나 수단, 목적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의 관념으로서,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관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Fischer et al., 2010: 138; Rokeach 1973: 99-113; Schwartz 1994: 22)이 가치를 개인의 집단 내 행동과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개념이라고 보았다.

가치의 분류와 측정은 Rokeach(1973: 99-113)에 의해 크게 발전하였지만, 그가 개발한 36개의 가치목록들은 포괄성과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Kahle, Beatty, & Homer, 1986: 405-409). 이후 Schwartz(1994: 23)가 Rokeach의 가치 내용을 보완하여 체계적 이론을 개발한 후로는 대부분의 가치연구에서 그의 이론이 활용되고 있다. Schwartz의 가치이론은 기존의 가치연구들이 문화적 차원에서 가치를 측정하고 분석한 반면, 가치 측정의 수준을 개인적 차원으로 바꾸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가치질문지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의 가치이론은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추출된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국가별 가치관 구조들을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권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구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Kim & Choi, 2009: 2).

Schwartz(1994: 22-26)는 가치를 10개의 가치형(안전중시형, 전통중시형, 동조중시형, 쾌락추구형, 자극추구형, 자기주도형, 권력주의형, 성취중시형, 박애형, 보편주의형)과 이 가치형들의 상위에 4개 가치차원(보수주의, 변화에 대한 개방, 자기고양, 자기초월)으로 구조화하였다. 가치차원 중 보수주의와 변화에 대한 개방, 그리고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는 [그림 1]처럼 양극에 위치하는 가치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자기고양가치는 권력중시형과 성취중시형 가치를 포함하며, 자신의 이익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다. 성취중시형 가치는 사회적 기준에 따른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개인적 특성과 이익을 조절하는 특성과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와 그들의 이익을 조절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권력중시형 가치는 사람에 대한 지배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다(Kim & Park, 2021: 249; Schwartz, 2012: 5-7). 반면, 자기초월가치는 박애형과 보편주의형 가치를 포함하며, 자신보다 타인과 전체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중요시하는 가치이다(Suh & Chong, 2016b: 315). Schwartz(2012: 4)의 가치이론에 따르면, 즉, 자기초월



[그림 1] Schwartz의 가치구조
[Figure 1] Schwartz's value structure
출처: Schwartz, 2012, p.4

<표 1>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의 정의 및 가치항목

<Table 1> Define and contents of self-enhancing and self-transcendental values

가치차원	가치형	정의	본 연구의 가치항목
자기고양 가치	권력주의형 가치	다른 사람 및 사회적 자원을 통제하는 지배력	물질풍요, 지배력
	성취중시형 가치	사회적인 기준에 맞는 성공	성공, 능력
자기초월 가치	박애형 가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복지와 안녕에 대한 헌신	충직한 삶, 도움주는 삶, 신뢰받는 삶 ¹⁾
	보편주의형 가치	인류와 자연의 복지와 안녕에 대한 보호와 헌신, 포용	환경보호, 넓은 마음, 평등

가치가 높을수록 자신의 편리함이나 이익보다 환경이나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이 높다.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의 정의와 가치항목은 <표 1>과 같다.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는 수준이 높은지와 낮은지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다. 두 개의 가치가 모두 낮은 경우도 있고, 모두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자기고양가치만 높거나 자기초월가치만 높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각 가치차원만을 연구의 주제로 삼고, 각 가치차원들이 다양하게 유형화되었을 때의 특징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이

1) ‘신뢰받는 삶’은 Suh & Chong(2012: 28)이 Schwartz의 PVQ-21을 한국어로 번안하면서 추가한 가치항목이다.

사실이다. 또한,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는 원 모양의 가치구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치차원이므로, 공존할 경우 심리적 및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Bubeck & Bilsky, 2004: 31-41; Park et al., 2018: 5). 그 이유에 대해 Suh & Chong(2012: 23)은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열망은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들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Kim(2017: 213)은 거리가 먼 가치를 같이 공유한 개인은 행동동기가 감소한다고도 하였다. 그렇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가 공존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가치 및 가치유형의 중요성

가치 및 가치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가치가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안내해 주는 원리이고 (Schwartz, 1992: 25-29; Suh & Chong, 2016a: 137), 개인의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개념이기 때문이다(Fischer et al., 2010: 138; Rokeach 1973: 99-113; Schwartz, 2006: 170). 즉,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그들의 태도와 행위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개인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는 개인의 특성을 밝히는 데 관심을 둔 사회과학, 즉 심리학이나 사회학 등의 연구에서 인간의 태도와 행동의 동기 요인으로써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는 가치가 진실성, 공감, 정의, 용기, 의지, 자기 통제 및 자기 통합성과 같은 개인의 특성과 관련시켜 연구되었다. 사회학에서는 인종이나 민족적 차별, 정치적 이념, 사고, 논리, 행동, 활동, 사회적 정의와 같은 폭넓은 사회적 태도 및 행동과 관련시켜 연구되었다(Choi & Lee, 2014: 554; Schwartz, 2006: 170).

특히 본 연구의 관심 주제인 자기고양가치는 성취중시형 가치와 권력주의형 가치를 포함하는 가치차원으로서, 전통적으로 사회적 성공의 동기요인으로서 관심을 받아왔다(Elliot & McGregor, 2001: 501-519). Park et al.(2018: 21)은 자신의 성공, 명성, 이득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차원인 자기고양가치를 지닌 초등학생은 외재적 동기, 수행회피목표, 시험불안, 지능고정관점 등 부정적 학습동기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Kim & Park(2021: 249)은 자기고양가치에 속하는 성취 가치는 대학생의 그릿, 자기결정성, 숙달목표 등을 정적으로 예측했지만, 학업성취의 유의한 예측요인은 아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자기고양가치에 속하는 또 다른 가치인 권력주의형 가치는 시험불안을 유발하고 개인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또 다른 관심 가치인 자기초월가치는 박애형가치와 보편주의형 가치를 포함하는 가치차원이다. Tornstam(2005: 174-187)은 초월을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인식과 연관시키면서, 물질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보다 우주적이고 영적인 시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동양사상을 빌어 표현하자면, ‘우주적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Lee, Park, & Park,

2013: 241-256). 따라서 자기초월가치는 개인이 자신의 편리함이나 이익, 또는 친밀한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타인, 자연, 세계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Han & Park, 2022: 353).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자기초월가치는 이타적인 삶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치차원이다.

이외에도 가치와 학교폭력, 중독 및 심리적 증상과 관련시키는 연구(Menesini, Nocentini, & Camodeca, 2013: 1-14), 아동, 청소년 및 대학생의 자기초월가치와 친환경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Suh & Chong, 2016a: 135-152), 자기초월가치가 학업성취에 매개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Han & Park, 2022: 351-379), 문화적 조건 속에서 개인 수준의 가치가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한 연구(Kim, 2017: 205-242), 자기초월가치가 적응적인 학습동기를 예측하는 변인인지를 탐색한 연구(Park et al., 2018: 1-29) 등이 가치가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가치와 개인의 삶의 질이나 행복과의 관계에 관심을 둔 연구는 가치가 인간 삶의 전반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해준다(Lee, Lee, & Kim, 2014: 117-132; Sortheix, Olakivi, & Helkama, 2013: 331-346).

사실, 가치는 개인의 삶의 안내하는 원리이므로(Schwartz, 1994: 22), 개인의 행복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Bobowik et al., 2011: 407-411; Rye & Lee, 2015: 95). 특히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복과도 관련이 있으므로(Koo & Suh, 2015: 78; Suh & Chong, 2016b: 315), 가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성취중시형 가치와 행복감과의 관계는 불일치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성취중시형 가치가 전반적인 행복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권력중시형 가치가 포함된 자기고양가치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bowik et al., 2011: 409; Koo & Suh, 2015: 78).

자아초월가치의 특징인 자연과의 연결감이나 유대감은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Howell et al., 2011: 168-169). 또한, 박애형과 보편주의형 가치가 포함된 자기초월가치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Bobowik et al., 2011: 411; Le, 2011: 177-179; Sagiv & Schwartz, 2000: 192-197; Suh & Chong, 2016b: 317). 그러나 자연과의 유대감과 긍정정서 간에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므로(Nisbet & Zelenski, 2011: 1102; Yoon, 2012: 24),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가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치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개인적 요인

첫째, 성별이다. 일반적으로 남녀는 사회화 과정에서의 성역할 차이로 인해 중요하게 생각하

는 가치가 다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화 과정에서 여자들에게는 타인을 보살피고 관계를 중요시하도록 요구되며, 남자들에게는 사회적 성취나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요구된다(Markus & Oyserman, 1989: 116-122). 따라서,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초월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으며,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고양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

국내의 한 연구는 남자는 자기결정가치를 더 중요시 하는 반면, 여자는 보편주의와 박애형 가치인 자아초월가치를 더 중요시한다고 점을 입증하였다(Choi & Lee, 2014: 580). 그러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치구조를 연구한 Suh & Chong(2012: 38)은 성별에 따라 가치구조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노년초월을 연구한 Yoon(2012: 27) 또한 성별은 노년초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가치구조에서는 아직 성별에 의한 차이가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음을 알려준다.

둘째, 연령대이다. 가치와 가치구조에 대한 연구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는 가치가 분화되지 않지만, 성장하면서 발달하고 분화된다고 가정한다(Grusec & Kuczynski, 1997: 87-95). 초등학생 7개, 고등학생 8개, 대학생 9개로 연령 증가에 따라 가치유형의 수가 증가함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Suh & Chong, 2012: 26). 나이가 각 연령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달라진다고(Boer & Boehnke, 2016: 137-142).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즐겁고 흥분되는 것이 중요하고 중년기에는 성공과 재정적 안전이 중요한 반면, 은퇴 후에는 건강과 가족의 응집력이 가장 우선시 된다. 또한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성취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반면, 상대적으로 박애와 권력 가치는 덜 중요하게 여긴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Park et al., 2018: 7).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80대에 일시적으로 초월가치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경향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초월가치가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Tornstam, 2005: 174-187; Yoon, 2012: 24). 반면,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시각이 변하는 것이지 연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고(Lee, Lee, & Kim, 2014: 120), 결정적 시기인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은 성인이 되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Ju & Choe, 2012: 681).

셋째, 교육수준이다. 교육수준의 증가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진다는 주장이 있다. 자기초월이 주제는 아니지만, 교육수준의 증가에 따라 자기주도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uh & Chong, 2012: 38).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서 노년초월에 이른다고 설명한 연구가 있고(Tornstam, 2005: 174-187), 고졸이하보다 대졸이상인 노년초월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Yoon, 2012: 24).

넷째, 종교유무이다. 종교여부를 사회적 활동 참여 여부에 포함시켜 연구한 Yoon(2012: 24)은 종교유무가 초월가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회봉

사활동, 여가활동과 함께 종교활동은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Suk, 2004: 240; Lee, Lee, & Kim, 2014: 121).

다섯째, 주관적 건강평가이다. 건강상태는 삶의 질이나 안녕감의 중요한 예측변인이다. 특히 주관적 측면에서 자신의 건강상태에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객관적인 건강상태보다 더 중요하다(Kim, 2015: 227). 많은 연구들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Kim, Lee, & Lee, 2010: 471-484; Park, Son, Bae, 2009: 1-24; Lee, Lee, & Kim, 2014: 122). 또한 노년초월의 경우 건강만족도가 높을수록 노년초월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Yoon, 2012: 7). 그러나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은 삶의 질이나 성공적인 노화와 관계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Lee & Cho, 2007: 80; Kim, Chung, & Shin, 2016: 441).

2) 가정적 배경

첫째, 혼인상태이다. Tornstam(2005: 174-187)은 결혼을 안했거나 이혼한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 노년초월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보고하였고, Hsieh & Wang(2008: 41-43)도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혼인 노인의 노년초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Yoon(2012: 14)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사별보다 노년초월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가족의 소득수준이다. 삶의 질은 소득수준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월평균소득이나 용돈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Ko, 2013: 35-54). 그러나 노년초월의 경우에는 경제적 상태에 따라 노년초월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고(Yoon, 2012: 24), 경제적 안정 및 여유를 중요시할수록 삶의 질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Lee, Lee, & Kim, 2014: 129).

셋째, 가족관계 만족도이다. 가족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관계망으로서, 가족관계 만족도가 개인의 삶의 질, 행복감, 자기초월가치의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Lee, Lee, & Kim(2014: 129)은 부부관계와 자녀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다수의 연구가 개인의 자기초월가치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Arieli, Grant, & Sagiv, 2014: 15-24; Tamir et al., 2016: 67-82). 또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의 가족이나 친구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개인일수록 노년 초월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Kim, Chung, & Shin, 2016: 437; Nakagawa, 2007: 2002; Yoon, 2012: 7).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인의 가치유형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와 가치유형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자료 중 2021년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Kim et al., 2022: 33). 1,205개의 응답 자료 중에서 결측치가 포함된 자료를 제외하고 1,145개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에 활용한 자료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특성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alysis subjects

구분		N(%)	구분		N(%)	구분		N(%)
성별	남자	481(42)	취업 여부	미취업	420(36.7)	혼인 상태	기혼	766(66.9)
	여자	664(58)		취업	725(63.3)		사별	105(9.2)
연령대	10대	11(1.0)	학력	무학	52(4.5)		이혼	60(5.2)
	20대	117(10.2)		초등학교	121(10.6)		별거	11(1.0)
	30대	152(13.3)		중학교	111(9.7)		미혼	199(17.4)
	40대	181(15.8)		고등학교	396(34.6)	종교	동거	4(0.3)
	50대	279(24.4)		전문대(2년)	145(12.7)		불교	252(22)
	60대	248(21.7)		대학교(4년)	295(25.8)		개신교	183(16)
	70대	113(9.9)		대학원(석사)	22(1.9)		천주교	88(7.7)
	80대	41(3.6)		대학원(박사)	3(0.3)		종교없음	612(53.4)
	90대	3(0.3)	합계		1,145(100)		기타	10(0.9)
합계		1,145(100)				합계		1,145(100)

2. 측정도구 및 내용

1) 가치유형 측정도구 및 행복감 측정문항

연구는 개인의 가치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KGSS 2021년 조사자료에 포함된 Schwartz의 가치체계 조사 문항 중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Suh & Chong(2012: 28)이 Schwartz의 PVQ-21을 한국어로 번안한 것이다.²⁾ 이 질문지는 1명의 가상적

인 인물에 대한 짧은 묘사를 제시하고 그 인물과 자신이 얼마나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1점-6점 응답척도로 평가하게 하는 방식이다(Suh & Chong, 2012: 24). KGSS 데이터(1=매우 같다, 2=같다 3=어느 정도 같다, 4=조금 같다, 5=같지 않다, 6=전혀 같지 않다)를 0-5점으로 역코딩(0=전혀 같지 않다, 1=같지 않다, 2=조금 같다, 3=어느 정도 같다, 4=같다, 5=매우 같다)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숫자가 클수록 가상인물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주성분 분석과 오블리민 회정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Be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는 근사 카이제곱 값이 3597.102(df=45, $p=.000$)이고, KMO 검정값이 0.887($p=.000$)이므로 요인분석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유값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여 2개의 주성분을 추출하였으며, 전체 변이의 54.36%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고양가치 측정 문항의 타당도는 0.667-0.763으로 나타났고, 자기초월가치의 타당도는 0.662-0.782로 나타나, 타당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ronbach's α 값이 0.712-0.824로 나타나, 신뢰성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치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따라서 자기고양가치는 4개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자기초월가치는 6개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행복감은 '귀하의 요즘 생활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점 척도를 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1. 매우 행복하다'에서 '5. 매우 불행하다'를 역재점 하였으므로 숫자가 클수록 행복함을 의미한다.

2) 가치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특성

가치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활용한 변인들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성별은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연령대는 18에서 29세 까지를 '20대 이하'로 코딩하였으며, 70대, 80대, 90대를 합쳐 '70대 이상'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무학과 초등학교

2) 가치연구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신뢰롭고 타당한 가치 측정 도구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Choi & Lee, 2014: 554; Suh & Chong, 2016b: 315). Bubeck & Bilsky(2004: 31-41)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치연구가 드물었던 이유는 이들을 대상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Rokeach(1973: 99-113)가 가치를 18개의 목적 가치(예: 편안한 삶, 자유)와 18개의 도구 가치(예: 야망이 있는, 이성적인)로 구분한 이후, Schwartz(1994: 22-26)는 가치의 구조에 관한 포괄적인 이론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문화권에 걸쳐 56개의 대표적 가치들을 측정할 수 있는 가치조사질문지(Schwartz Value Survey: SVS)를 개발하였다. 가치묘사질문지(Portrait Value Questionnaire: PVQ)는 SVS 중 높은 수준의 인지적 능력을 갖춰야 응답이 가능한 항목들을 제외시켜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대규모 사회 조사 등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시 21개 문항으로 축소된 PVQ-21이 개발되었다(Schwartz, 2006: 170). 많은 연구들이 Schwartz의 가치묘사질문지를 활용하고 있다(Choi & Lee, 2014: 553-590; Ju & Choe, 2012: 679-702; Suh & Chong, 2016a: 135-152).

<표 3> 가치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value measuring tool

문항 번호	문항내용	가치 항목	가치 유형	가치 차원	성분		신뢰도
					1	2	
2	부자가 되는 것은 그에게 중요하다. 그는 많은 돈과 값진 물건들을 갖고 싶어 한다.	물질풍요	권력 주의형 가치	자기 고양 가치	.763		.712
17	그는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한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기를 원한다.	지배력			.667		
4	그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에 감탄하기를 원한다.	능력	성취 중시형 가치		.729		
13	성공하는 것은 그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	성공			.739		
12	그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남들의 안녕 (웰빙)에 신경을 쓴다.	도움주는 삶	박애형 가치	자기 초월 가치		.750	.824
18	그는 친구들에게 충실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헌신하기를 원한다.	충직한 삶				.677	
21	전반적으로 남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하다.	신뢰받는 삶				.782	
3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등	보편 주의형 가치		.662		
8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넓은 마음				.704	
19	그는 사람들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자연환경을 돌보는 것은 그에게 중요하다.	환경 보호				.780	

<표 4>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활용된 독립 및 종속변인의 특성
 <Table 4> The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used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구분	변수명	척도	변수설명
독립 변인	개인적 요인	성별	이분형	남(0) 여(1)
		연령대	범주형	10-19 및 20-29 → 20대 이하 30-39 → 30대 40-49 → 40대 50-59 → 50대 60-69 → 60대 70-79 및 80-89와 90-99 → 70대 이상
		학력	범주형	무학 및 초등학교 →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2-3년제) 대학교 및 석사와 박사 → 대학교(4년제) 이상
		종교여부	이분형	종교 없음(0)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 종교 있음(1)
		주관적 건강평가	연속형	5점척도(1:나쁘다-5:매우 좋다)
	가정적 배경	혼인상태	이분형	사별, 이혼, 별거, 미혼 → 배우자 없음(0) 기혼, 동거 → 배우자 있음(1)
		가계소득수준	연속형	5점척도(1:평균보다 훨씬 낮다-5:평균보다 훨씬 높다)
		가족관계만족도	연속형	7점척도(1:전적으로 불만족하다-7:전적으로 만족하다)
종속변인	가치유형	이분형	1 가치미정형 4 가치혼합형	

교를 합쳐 ‘초등학교 이하’로 재코딩하였으며, 대학(4년제),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를 합쳐 ‘대학교(4년제) 이상’으로 재코딩하였다. 혼인상태는 기혼과 동거를 ‘배우자 있음’으로, 사별, 이혼, 별거, 미혼을 ‘배우자 없음’으로 재코딩하였다. 종교는 종교없음은 그대로 ‘종교 없음’으로 코딩하였고,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를 ‘종교 있음’으로 재코딩하였다.

3. 분석방법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

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4개의 가치유형별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 행복감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일변량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은 scheffe방법을 활용하였다. 셋째, 행복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가치미정형과 가치혼합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 모든 분석을 위해 Window용 SPSS 24.0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가치 유형화 및 가치유형별 행복감의 차이

각 개인의 자기고양가치 측정값은 평균값인 2.60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로 분류하였으며, 자기초월가치 측정값도 평균값인 2.79를 기준으로 평균보다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로 분류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림 2]와 같이 4개의 가치유형이 만들어졌다.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1유형은 ‘가치미정형’으로 명명하였고, 자기고양가치는 평균보다 높지만 자기초월가치는 평균보다 낮은 2유형은 ‘가치고양형’이라 명명하였다. 자기고양가치는 평균보다 낮고 자기초월가치는 평균보다 낮은 3유형은 ‘가치초월형’이라 명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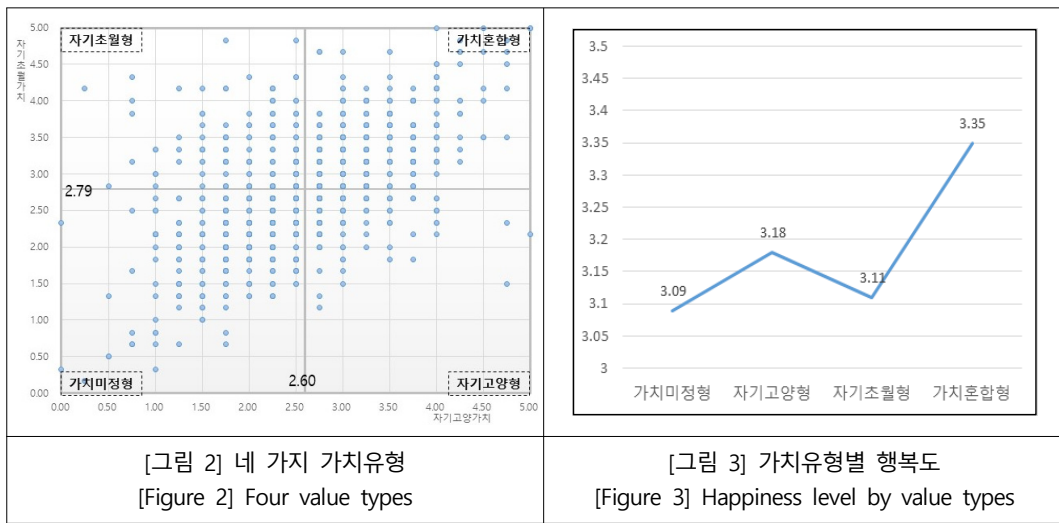
<표 5> 가치유형별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 그리고 행복감의 차이
<Table 5> Difference between self-enhancing and self-transcendental value and happiness by value type

	1 가치미정형	2 자기고양형	3 자기초월형	4 가치혼합형	합계	F(p)	사후분석 결과
N	429	135	167	414	1,145		
	M(SD)	M(SD)	M(SD)	M(SD)	M(SD)		
자기고양 가치	1.97 (0.48)	3.08 (0.46)	2.06 (0.49)	3.32 (0.48)	2.60 (0.80)	678.25***	1,3<2<4
자기초월 가치	2.09 (0.46)	2.40 (0.31)	3.33 (0.45)	3.42 (0.47)	2.79 (0.77)	726.98***	1<2<3,4
행복감	3.09 (0.94)	3.18 (0.76)	3.11 (1.72)	3.35 (1.01)	3.19 (1.10)	4.375**	1<4 1≠2,3 2≠3,4 2,3≠4

* $p<.05$ ** $p<.01$ *** $p<.001$

하였고,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가 모두 평균보다 높은 4유형은 ‘가치혼합형’이라 명명하였다.

4개 가치유형별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 측정값은 <표 5>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4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그림 3]과 같이 가치혼합형에 속한 개인들의 행복감은 가치미정형에 속한 개인들의 행복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자기고양형과 자기초월형은 가치미정형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가치혼합형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가치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행복감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가치미정형과 가치혼합형에 속한 개인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이 높고, 여성은 가치미정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30대 이하는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이 높고 40-60대는 가치미정형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70대 이상은 다시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학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개인은 가치미정형에 속할 확률이 높고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개인은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종교가 없는 개인은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이 높고 종교가 있는 개인은 가치미정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배우자가 있는 개인과 배우자가 없는 개인이 가치미정형과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은 동일하다. 가치혼합형에 속하는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 가계소득수준,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치미정형에 속하는 개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치혼합형과 가치미정형에 속한 개인들의 특성

<Table 6>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belonging to the 'value mixed type' and the 'value undetermined type'

척도	변수명	구분	1 가치미정형	4 가치혼합형	합계
			N(%)	N(%)	N(%)
명목척도	성별	남자	175(48.2)	188(51.8)	362(100.0)
		여자	254(52.9)	226(47.1)	480(100.0)
	연령대	20대 이하	37(40.7)	54(59.3)	91(100.0)
		30대	50(46.3)	58(53.7)	108(100.0)
		40대	73(52.5)	66(47.5)	139(100.0)
		50대	113(54.1)	96(45.9)	209(100.0)
		60대	101(56.1)	79(43.9)	180(100.0)
		70대 이상	55(47.4)	61(52.6)	116(100.0)
	학력	초등학교 이하	72(56.7)	55(43.3)	127(100.0)
		중학교	60(69.8)	26(30.2)	86(100.0)
		고등학교	152(52.2)	139(47.8)	291(100.0)
		전문대학(2·3년제)	57(55.3)	46(44.7)	103(100.0)
		대학교(4년제) 이상	88(37.3)	148(62.7)	236(100.0)
	종교유무	종교 없음	220(48.6)	233(51.4)	453(100.0)
		종교 있음	209(53.6)	181(46.4)	390(100.0)
	혼인상태	배우자 없음	137(50.9)	132(49.1)	269(100.0)
		배우자 있음	292(50.9)	282(49.1)	574(100.0)
	합계		429(50.9)	414(49.1)	843(100.0)

	변수명	1 가치미정형	4 가치혼합형	합계
		M(SD)	M(SD)	M(SD)
등간척도	주관적 건강 평가	2.98(1.11)	3.19(1.11)	3.08(1.11)
	가계소득수준	2.51(0.76)	2.81(0.78)	2.65(0.78)
	가족관계만족도	4.89(1.81)	5.32(1.16)	5.10(1.54)

가치미정형과 가치혼합형의 2개 가치유형을 종속변수로 하고 가치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모형의 -2LL은 1087.674이고 상수항만으로 구성된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모형의 -2LL은 1012.592이므로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적합도가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Nagelkerke R-제곱을 사용하는데, Nagelkerke R-제곱값이 0.114이므로 개인적 요인 및 가정적 배경이 가치미정형과 가치혼합형에 속할 비율의 11.4%를 설명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측의 정확도는

<표 7> 가치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Table 7>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Value Type Determination

독립변수		B	S.E.	Wals	p	Exp(B)
개인적 요인	성별	-0.12	0.15	0.63	0.43	0.89
	연령대(20대)			10.45	0.06	
	연령대(30대)	-0.05	0.32	0.03	0.87	0.95
	연령대(40대)	-0.26	0.31	0.74	0.39	0.77
	연령대(50대)	-0.17	0.29	0.34	0.56	0.84
	연령대(60대)	0.03	0.31	0.01	0.93	1.03
	연령대(70대 이상)	0.71	0.37	3.63	0.06	2.02
	학력(초등학교 이하)			18.21	0.00	
	학력(중학교)	-0.26	0.32	0.67	0.41	0.77
	학력(고등대학)	0.49	0.27	3.27	0.07	1.63
	학력(전문대학)	0.36	0.34	1.13	0.29	1.43
	학력(대학교 이상)	0.93	0.30	9.39	0.00	2.53
	종교유무	-0.29	0.15	3.67	0.06	0.75
	주관적건강평가	0.00	0.08	0.00	0.99	1.00
가정적 배경	혼인상태	-0.10	0.18	0.30	0.59	0.91
	가계소득수준	0.37	0.11	12.44	0.00	1.45
	가족관계만족도	0.20	0.07	9.03	0.00	1.22
상수항		-2.23	0.54	17.24	0.00	0.11
독립변수 포함된 모형의 - 2LL = 1087.674						
상수항만으로 구성된 모형의 - 2LL = 1012.592						
Nagelkerke R- 제곱 = 0.114						
분류정확도: 63.3%						

63.3%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에서 보면, 성별, 연령대,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평가와 혼인상태는 다른 독립변수들이 모형에 존재할 때 분류 예측력이 낮다. 반면, 학력, 가계소득수준, 가족관계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류예측력을 지닌다. 0이 기준인 회귀분석과는 달리, Exp(B) 가 1 초과인 경우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Exp(B) 가 1 미만인 경우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학력, 가계소득수준과 가족관계만족도는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졸업 모두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지 않는 반면, 대학교 이상 졸업의 경우에는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가계소득수준이 1만큼 커지면,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이 1.45만큼 커지며, 가족관계만족도가 1만큼 커지면,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이 1.22만큼 커진다. Exp(B) 값을 참고로 했을 때, 대학교 이상의 졸업이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며, 그 다음이 가계소득수준과 가족관계만족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이 연구는 10대에서 90대까지의 한국인의 가치를 조사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KGSS 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의 수준을 토대로 가치를 유형화 한 후, 각 유형에 따라 행복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행복감이 높은 가치유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가정적 배경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첫 번째 연구결과를 보면, 개인의 가치유형은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네 가지 가치유형은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가치미정형, 자기고양가치는 평균보다 높지만 자기초월가치는 평균보다 낮은 자기고양형, 자기고양가치는 평균보다 낮고 자기초월가치는 평균보다 높은 자기초월형,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가 모두 평균보다 높은 가치혼합형이다. 가치유형별로 개인들의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가치혼합형에 속한 개인들의 행복감이 가치미정형에 속한 개인들의 행복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고양형과 자기초월형은 가치미정형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가치혼합형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연구결과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먼저,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권력중시형, 성취중시형, 박애형, 보편주의형 등의 가치형들이 분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의 가치형들이 분화되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Kim & Park, 2021: 247)와는 다른 결과이며, 다른 가치형들과 달리 보편주의형 가치와 박애형 가치는 완전히 분화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결과(Bubeck & Bilsky, 2004: 31-41)와는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연구대상이 20대 초의 대학생이기 때문에, 20대에서 90대까지 전 연령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이 가치형들의 상위 가치차원인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는 분명히 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Schwartz(2012: 4-11)의 가치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가 개인에 따라 높고 낮음 등의 다양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은 자기초월에 해당하는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자기고양에 해당하는 가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연구(Kim & Park, 2021: 247)와는 다른 결과이며, 한국 대학생들이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자리매김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두 가지 가치가 모두 중요하지 않거나 중요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며, 두 가지 가치 중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할 수도 있음도 알려주는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가치혼합형이 가치미정정보다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을 알려준다. 사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가 공존할 경우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가 공존하고 있다. 두 개의 가치차원이 공존할 경우 심리적 및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고(Bubeck & Bilsky, 2004: 31-41; Kim & Choi, 2009: 4; Park et al., 2018: 5), 서로 교집합을 이루거나 상충된 채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Allport 1961: 37-45; Kim, 2017: 214; Schwartz 1992: 25-29).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의 주장과 비교한다면,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가 공존하고 교집합을 이루는 경우 개인의 행복이 증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두 개의 가치차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하는지를 밝힐 필요는 있다.

두 번째 연구결과는 개인적 요인 중 성별, 연령대,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평가는 개인의 행복감이 높은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학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가정적 배경 중 혼인상태는 개인이 행복감이 높은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계소득수준과 가족관계만족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려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력은 전문대학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개인은 가치미정형에 속할 확률이 높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개인은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계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가족관계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요인은 학력이었고, 그 다음이 가계소득수준, 가족관계만족도 순이었다.

두 번째 연구결과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성별이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Choi & Lee, 2014: 580)와는 다른 결과이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

들(Suh & Chong, 2012: 38; Yoon, 2012: 27)과는 동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녀는 사회화 과정에서 성역할 차이를 요구받고 있지만,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가 모두 높은 가치혼합형이 자아실현에 대한 동기가 높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높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역할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남녀에 상관없이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령대가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초월가치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들(Tornstam, 2005: 174-187; Yoon, 2012: 24)과는 다른 결과이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한 연구들(Ju & Choe, 2012: 681; Lee, Lee, & Kim, 2014: 120)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에 상관없이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가 모두 높은 가치혼합형이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높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다음에 논의될 연령의 증가보다는 학력에 의한 차이가 더 큰 의미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보다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년초월에 이른다고 설명한 연구(Tornstam, 2005: 174-187), 그리고 고졸이하보다 대졸이상이 노년초월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Yoon, 2012: 24)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인지능력, 추론능력 및 메타인지의 발달이 가치와 가치구조의 발달에서 중요한 지표라고 주장한 학자들의 의견(Bubeck & Bilsky, 2004: 31-41; Fisher, 1980: 487-493; Fisher & Lamborn, 1989: 45-55)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종교유무가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종교여부를 포함하는 사회적 활동 참여가 초월가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Lee, Lee, & Kim, 2014: 121; Suk, 2004: 240; Yoon, 2012: 24)과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사회활동의 범주를 종교활동만으로 협소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은 종교활동, 사회봉사활동, 여가활동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크게 범주화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종교유무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을 포함시켜 가치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건강평가가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건강만족도가 높을수록 노년초월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Yoon, 2012: 7), 개인적 건강이 권력 중시형 가치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Davidov, 2008: 33-46; Sagiv & Schwartz, 2000: 177-200)와는 다른 결과이지만,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은 삶의 질이나 성공적인 노화와 관계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Kim, Chung, & Shin, 2016: 441; Lee & Cho, 2007: 80)와는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선행연구들이 대체로 노년층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의 대상은 10대에서 50대까지가 64.7%이고 10대에서 60대까지가

86.4%를 차지하고 있어서 건강에 크게 이상이 있을 연령대가 아니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건강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는 연령대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가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자기초월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Hsieh and Wang, 2008: 41-43; Tornstam, 2005: 174-187; Yoon, 2012: 14)과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혼인상태 외에 가족관계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함으로써, 혼인상태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배우자의 유무가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가 높게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은 개인이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수준은 성취중시형 가치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Davidov, 2008: 33-46; Sorthaix & Lönqvist, 2014: 289-299) 그리고 경제적 상태가 노년초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Yoon, 2012: 24)와는 다른 결과이다. 사실, 선행연구는 중장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자기초월가치만을 주제로 한 연구여서, 20대에서 90대까지의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면서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가 모두 높은 가치혼합형을 주제로 하는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족의 소득수준이 자기고양가치 및 자기초월가치가 모두 높은 가치혼합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은 개인이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수용은 권력중시형 가치와 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Davidov, 2008: 33-46; Sagiv & Schwartz, 2000: 177-200)와는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친사회적 행동과 개인의 자기초월가치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Arieli, Grant, & Sagiv, 2014: 15-24; Tamir et al., 2016: 67-82), 지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관계를 유지할수록 노년 초월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Kim, Chung, & Shin, 2016: 437; Nakagawa, 2007: 202; Yoon, 2012: 7)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개인이 행복감이 높은 가치혼합형에 속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관계망인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등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가치혼합형이 가치미정정보다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두 개의 가치차원이 공존할 경우 심리적 및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고(Kim & Choi, 2009: 4; Park et al., 2018: 5; Bubeck & Bilsky, 2004: 31-41), 서로 교집합을 이루거나 상충된 채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Allport 1961: 37-45; Kim, 2017: 214). 따라서, 자기고양가치와 자기초월가치가

공존할 경우 어떻게 상호작용하거나 통합되면서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하는지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종교활동, 사회봉사활동, 여가활동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활동을 크게 범주화한 후에 종교유무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별로 가치유형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탐색할 필요도 있다. 가족의 소득수준이 가치혼합형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한 연구들을 통해 연구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적 요인과 가정적 배경이 가치차원과 유형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가치유형별로 행복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실증연구에 머물러 있다. 사실 가치는 다양한 경험이나 교육의 영향을 받으므로(Choi & Lee, 2014: 580; Suh & Chong, 2012: 40), 바람직한 가치결정을 지원하는 교육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들을 모두 포함시켜 개인적 요인과 가정적 배경으로 나누어 가치유형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폈지만, 행복감은 너무 복합적인 영향요인들이 작동하는 정서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포함시킨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References

- Allport, G. W. & Vernon, P. E. (1931). *A study of values: A scale for measuring the dominant interests in personality*.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Arieli, S., Grant, A. M., & Sagiv, L. (2014). Convincing yourself to care about others: An intervention for enhancing benevolence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82(1), 15-24.
- Bobowik, M., Basabe, N., Páez, D., Jiménez, A., & Bilbao, M. A. (2011). Personal values and well-being among Europeans, Spanish natives and immigrants to Spain: Does the cultural matter?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3), 401-419.
- Boer, D. & Boehnke, K. (2016). What are values? Where do they come fro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T. Brosch & D. Sander (Eds.), *Handbook of value* (pp. 129-15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ubeck, M. & Bilsky, W. (2004). Value structure at an early age.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3(1), 31-41.
- Choi, J. W. & Lee, Y. H. (2014).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rtrait values questionnaire-revised (PVQ-R).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3(3), 553-590.
- Choi, S. H. (2020). A study on educational tasks and the management of universities to respond to changes in future societ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6(3), 217-224.
- Davidov, E. (2008). A cross-country and cross-time comparison of the human values measurements with the second round of the European social survey. *Survey Research Methods*, 2, 33-46.
- Elliot, A. J. & McGregor, H. A. (2001). A 2×2 achievement goal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3), 501-519.
- Fischer, R., Vauclair, C. M., Fontaine, J. R., & Schwartz, S. H. (2010). Are individual-level and country-level value structures different? Testing Hofstede's legacy with the Schwartz value surve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1(2), 135-151.
- Fisher, K. W. & Lamborn, S. D. (1989). Mechanism of variation in developmental levels: Cognitive and emotion transitions during adolescence. In A. K. Ribaupierre (Ed.), *Transition mechanisms in child development: The longitudinal perspective* (pp. 33-6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sher, K. W. (1980). A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The control and construction of hierarchies of skills. *Psychological Review*, 87, 477-531.
- Gardner, H. (1993). *Multiple intelligence-theory in practice*. N.Y.: Basic Books.
- Grusec, J. E. & Kuczynski, L. (1997).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New York: Wiley.
- Han, S. Y. & Park, Y. H. (2022). The role of self-transcendence value and mastery goal in the relation between teacher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 mediation analysis using 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0(1), 351-379.
- Howell, A. J., Dopko, R. L., Passmore, H. A., & Buro, K. (2011). Nature connectedness: Associations with well-being and mindful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2), 166-171.
- Hsieh, L. Y. & Wang, J. J.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gerotranscendence and demographics in institutionalized elders. *Journal of Nursing*, 55(6), 37-46.
- Ju, Y. H. & Choe, H. S. (2012). A study on values of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and the relations among values.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2(3), 679-702.
- Kahle, L. R., Beatty, S. E., & Homer, P. (1986). After-native measurement approaches to consumer values: The list of values and values and life styl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3, 405-409.
- Kim, E. J., Chung, H. J., & Shin, Y. S. (2016).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health, and

- family relationships on gerotranscendence among Korean elderly. *Family and Family Therapy*, 24(3), 435-457.
- Kim, E. Y. & Park, Y. H. (2021). Relations of college students' values to their academic attitudes and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9(1), 227-258.
- Kim, H. Y. (2015). Social life and cognitive function in old ag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4(1), 225-251.
- Kim, J. Y., Lee, S. G., & Lee, S. K. (2010). Relationship between Health behaviors, health status,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0(2), 471-484.
- Kim, M. S. & Ko. J. W. (2013). Elderly's leisure activity on their health and the mediating role of family support.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0, 35-54.
- Kim, Y. S. & Choi, H. N. (2009). Extending the validity of the Schwartz's universal value theory: The case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1), 1-16.
- Kim, Y. S. (2017). Value conflic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Politics*, 26(3), 205-242.
- Kluckhohn, C. (1951). Values and value 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An exploration i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In Parsons, T. & Shils, E.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pp.388-433).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oo, J. S. & Suh, E. K. (2015). Why Korean university students are less happy than U.S. counterparts? The role of relative extrinsic value orientation,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ariso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9(4), 63-83.
- Le, T. (2011). Life satisfaction, openness value, self-transcendence, and wisdom.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2), 171-182.
- Lee, M. A., Lee, S. G., & Kim, H. R. (2014). The effects of gerotranscendental life-styles on quality of life: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gerotranscendental education programs for dying patients. *Korean J Med Ethics*, 17(2), 117-132.
- Lee, M. A., Park, S. R. & Park, H. K. (2013). Returning to the paradigm for elderly care policy through a discourse on the good society: From justice to respect for the elderly.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33, 241-256.
- Lee, S. L. & Cho, S. H. (2007). Aging and wisdom: An integrated conceptualization of successful aging.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3(3), 65-87.
- Markus, H., & Oyserman, D. (1989). Gender and thought: The role of the self-concept. In

- M. Crawford & M. Gentry (Eds.), *Gender and thought: Psychological perspectives* (pp.100-127). New York: Springer Verlag.
- Menesini, E., Nocentini, A., & Camodeca, M. (2013). Morality, values, traditional bullying, and cyberbullying in adolesce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1, 1-14.
- Nakagawa, T. (2007). Exploratory research on gerotranscendence of the Japanese elderly living in the community. *Japanese Journal of Gerontology* 29(2), 201-202.
- Nisbet, E. K. & Zelenski, J. M. (2011). Underestimating nearby nature affective forecasting errors obscure the happy path to sustainability. *Psychological Science*, 22(9), 1101-1106.
- Noble, K. (2001). *Riding the windhorse: Spiritual intelligence and the growth of the self*. NY: Hampton Press.
- Park, S. M., Son, J. A, & Bae, S. W. (2009). A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prospective change of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Focusing on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Social Science Research*, 25(3), 1-24.
- Park, Y. H., Kim, E. Y., Han, S. Y. & Cho, S. H. (2018). Relations between values and academic motiv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1(2), 1-29.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Rye, Y. J. & Lee, S. J. (2015). Influence of mindfulness on happiness: Focus on materialism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 91-110.
- Sagiv, L. & Schwartz, S. (2000). Value priorities and subjective well-being: Direct relation and congruity effec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2), 177-200.
- Schwab, K. *Shap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김민주, 이엽 옮김 (2020).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 서울: 메가스터디북스.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s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s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4), 19-45.
- Schwartz, S. H. (2006). A theory of cultural value orientations: Explication and applications. *Comparative Sociology*, 5(2), 137-182.
- Schwartz, S. H. (2012). An overview of the Schwartz theory of basic values.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1), 1-20.
- Son, S. N. (2011). Sustainable Future, Quality of Life and Ecological Education, *Theory and*

- Practice of Education*, 15(2), 93-115.
- Sortheix, F. & Lönnqvist, J. (2014). Personal value priorities and life satisfaction in European: The moderating role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5(2), 289-299.
- Sortheix, F. M., Olakivi, A., & Helkama, K. (2013). Values, life events, and health: A study in a Finnish rural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331-346.
- Suh, J. Y. & Chong, Y. S. (2012). Development of value structure with age.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5(2), 21-44.
- Suh, J. Y. & Chong, Y. S. (2016a).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transcendence value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in children,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9(2), 135-152.
- Suh, J. Y. & Chong, Y. S. (2016b).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values, nature-relatedness, an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2(3), 313-342.
- Suk, M. S. (2004). Ecological-systematic approach to subjective well-being of aged at local communit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6, 237-261.
- Tamir, M., Schwartz, S. H., Cieciuch, J., Riediger, M., Torres, C., Scollon, C., Dzokoto, V., Zhou, X., & Vishkin, A. (2016). Desired emotions across cultures: A value-based accou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1(1), 67-82.
- Tornstam, L. (2005). *Gerotranscendence: A Developmental Theory of Positive Ag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Yoon, M. S. (201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affecting factors of gerotranscendence in metropolitan area in Korea,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6, pp.7-32.
- 김지범, 강정환, 김석호, 김창환, 박원호, 이운석, 최슬기, 김솔이 (2022).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1.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Kim, J. B., Kang, J. H., Kim, S. H. Kim, C. H., Park, W. H., Lee, Y. S., Choi, S. G., & Kim, S. I. (2022).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03-2021*.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